

# “달빛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하라”

### 영호남 6곳 시·도지사 이어 시·도의회 의장들 공동 호소문 “동서화합·균형발전 위해 필요”

영·호남 교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달빛(달구벌·빛고을)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영·호남 지역 정치권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광주와 대구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지사 6명이 단결된 영·호남을 잇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할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공동으로 호소하는데 이어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들도 힘을 보탰다.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들은 3일 광주시의회에서 달빛 내륙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을 동서 화합, 국민통합,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면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철도망과 연계돼 전국적인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촉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의 연결과 완성은 막힌 혈관을 뚫어 건강한 국토를 만드는 일이다”면서 “정부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영·호남 6개 시·도지사

는 지난달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만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달 23일 청와대와 정부에 ‘달빛 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청와대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차례로 만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자치단체는 달빛 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연대·대응하고 있다.

달빛 내륙철도는 4조8500억원을 들여 광주와 대구 사이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용집 광주시장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들이 3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미얀마 군사정권은 폭력의 소용돌이 멈춰라”

### 광주시·세계지방정부연합 민주화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과 함께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와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 세계 지방정부가 참여한 연합체다. 광주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도시로 이번 성명 발표를 주도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4월 6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 바르셀로나 시장 등과 화상회의를 갖고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차원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합의했으며,

유엔 차원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국내 17개 시·도와 해외 4개 도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국내 모든 시·도 단체장들은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다. 해외에서는 UCLG 인권위원회 의장도시인 프랑스의 그리니시와 샌 샌드니 의회,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가 참여했다. UCLG 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성명서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지속해서 자행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탄압과 체포, 살해에 직면한 미얀마 국민과 선출된 대표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명한다”며 “모든 미

얀마 시민의 기본권, 특히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특히 위험에 처한 언론인, 인권 지도자 및 고위인사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권에 의해 체포된 민주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이끈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동성명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세계지방정부연합, 광주시 등이 적극 협력한 결과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전 세계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광주시는 향후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대해 두 기관과 지속 협력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국회의원 사무실發 집단 감염 손배 검토

### ‘엄정 처벌위원회’에 안건 회부

광주 방역당국이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양산한 담양 지인·가족 모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만간 ‘코로나19 시민 보호·엄정 처벌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당사무소 관계자가 포함된 모임과 관련한 확진자는 광주 54명, 전남 19명, 전북 2명, 서울 1명 등 모두 76명이다.

광주시는 확산 계기가 된 모임 과정에서 이 의원의 비서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출입해 감염을 확산한 사실이 확인(광주일보 2021년 4월 19일자 2면)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게

됐다. 엄정 처벌위원회에서는 고의성 정도, 수칙 위반이 감염 확산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한다. 특히 이 의원의 수행비서가 지인 3~4명과 광주 상무지구의 모 유흥업소(일명 톱살롱)에서 집단 여성 등을 불러 술자리를 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지침을 어긴 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자리를 함께한 접대 여성이 감염 상태에서 인근 다른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는 등 N차 감염으로 연결되면서 이날 술자리 관련 확진자만 1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확진자 증가로 방역에 부담을 준 만큼 변호사 등에게 자문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실의 등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 대학발전협력단 12일 출범...위기 공동대응

신입생 총원 미달 등 지역 대학의 위기 대응에 대응하는 민간 협의체인 광주 대학발전 협력단이 공식 출범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대학발전 협력단은 오는 12일 시청 12층 사무실에서 헌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협력단은 광주시 공무원 3명,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1명과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동강대에서 1명씩 파견한 직원들로 구성됐다.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지역 17개 대학은 지

난달 8일 지역 대학 위기 대응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단 구성에 뜻을 모았다. 협력단은 그동안 광주시 여러 부서에 흩어진 대학 관련 28개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관계 기관끼리 협력을 강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설명했다. 인공지능과 친환경 자동차 등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특성화, 대학 혁신 전략 마련, 중앙 부처 공모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와 상생을 도모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가정의 달 맞춤형 가족 관광지 63선 소개

### 코로나 안심여행관광지 중심

전남도는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전남 대표 안심여행 관광지 63선을 중심으로 ‘5월 가정의 달 가볼만한 관광지 63선’을 추천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특별한 휴일에 맞춰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와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공룡영화 이야기를 공감할 ‘목포자연사박물관’, 예술인의 꿈을 바다와 함께 키워보는 ‘여수에술의 섬 장도’, 레일바이크와 초콜릿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곡성 섬진강가차마을’, 해상 왕 보고고장군의 위대한 기상을 체험할 ‘완도 장보고공원’ 등이 제격이다. 이외에 자연과 생물과의 교감 1번지 함평자연생태공원, 전쟁체험 무안 밀리터리테마파크, 신나는 우주체험 고흥 우주발사장, 세계 최대 공동할 화석지 보성 비봉공룡공원, 동화같은 신안 퍼플섬 등 자녀 선호에 따

라 골라 즐길 수 있다.

어버이날 등 부모님과 함께 노후 여행을 선물할 곳으로는 철쭉, 장미 등이 만개한 ‘순천만국가정원’, 호수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의 ‘장성호수변길’, 케이볼카를 타고 산에 오르는 ‘두륜산도립공원’ 등이 있다. 휴거는 여행지로 진돗개테마파크와 나주 황포돛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여행지로 삼립육의 명소 장흥 우드랜드가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나 마음의 중증이 필요한 여행객은 율출산의 정기를 담은 영암 도갑사, 천불천탑의 화순 운주사, 백제 최후 사찰 영광 불갑사, 선각극사 도선의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등에서 일상을 벗어나 자연에서 주는 넉넉함으로 힐링할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 가볼만한 관광지 63선은 전남도 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와 전남도의 관광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남도여행길잡이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임야** 삽니다  
지분 환영  
당일처리. 010-8902-7900

**경매물건 투자**  
급매물에  
하실 분.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상가, 다가구 및 주택용지 ※ 목포남약 준주거, 담양양각 주거2중

- (1)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방제림, 독일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 15분 공용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답 4220㎡(1,276평) 매 ㎡ 6십5만원
- (2) 무안군 삼양읍 남악리 준주거지 롯데마트앞 사거리코너 3만여세대 아파트 핵심상권 1천9평 매75억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간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족자 최상 ㎡ 5천원 급매
- (2) 화순 도곡 신성리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방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송 다수 자생 생약 재배 적합, 농가 주택가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판사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